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❷ 〈석보상절〉의 의미



▶ 한줄요약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24권의 〈석보상절〉과 600여 수의 〈월인청강지곡〉이 완성됐다. 이들 훈민정음 대장경에는 신미대사 등 11명의 조력자가 있었다고 한다. 〈석보상절〉 등은 이들이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기에 가능했다.

'집단지성 힘', 훈민정음 대장경



그림 · 강병호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석보상절·월인천강' 제작해
신미대사 등 11명 편찬 조력

이들이 한글 창제에 관여 않고
어떻게 빠른 편찬 가능 했을까
'집단지성' 훈민정음 창제 초석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석가모니께서 태어나고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일생과 설법한 경전 내용(釋譜)을 자세히 할 것은 자세히 하고(詳) 간략히 할 것은 간략하게(節) 편집한 조선시대 최초의 훈민정음 불경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달(月)이 하나이지만 지상에 있는 천 개의 강(千江)에 똑같이 도장(印) 찍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가 온 세상에 두루함을 노래(曲)한 것이다. 특히 〈석보상절〉의 내용을 게송처럼 요약한 것이다.

일반적인 불교 경전의 형식은 부처의 설법 내용을 전한 뒤에 요약한 게송이 이어지는 '산문+운문' 순서로 되어 있다. 산문 〈석보상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운문 〈월인천강지곡〉이 등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바늘과 실' 처럼 한 세트요 둘이 묶여야 온전한 불교 경전의 형식을 갖춘 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석보상절〉을 지을 때 이미 〈월인천강지곡〉이 예견되어 있던 것이요,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져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하여 1459년 세조는 이 두 책을 드디어 합편하였다. 조선의 최초 대장경 〈월인석보〉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불경의 '강설+게송'의 형식을 따르자면 제목이 '석보+월인'이 되어야 한다. 실제 지어진 순서도 〈석보상절〉이 먼저였으나 수양대군은 자신이 왕(세조)이 된 지 5년 후에 1459년 아버지 세종의 노래 〈월인천강지곡〉을 앞세우고 아들인 자기의 산문 〈석보상절〉의 순서를 뒤로 하여 '월인+석보'의 순서로 완성한다. 〈월인석보〉는 조선식 대장경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이 세 책은 부모와 자식이 대를 이어가며 쓴 책이요 둘이 합해 하나가 되고 나누면 셋이 되는 '다즉일 일즉다' 화엄사상을 실현한 책이라 하겠다.

불가사의한 집필 완성 속도

그렇다면 24권의 대작 〈석보상절〉과 600여수의 대서사시 〈월인천강지곡〉의 분량과 완성 속도는 어떠했을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네스북에 오를 만하다. 21세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훈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이렇게 방대하고 훌륭한 산문과 운문을 짓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이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방증이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월인석보〉 서문에는 책의 자문단으로 명기된 11명의 동참자가 등장한다. 정독을 해나가다 보면 〈석보상절〉에서는 김수온이, 〈월인석보〉에서는 신미의 목소리가 오버랩될 때가 있다. 과연 그럴까. 찬찬히 읽어보기로 하자.

한편 꼼꼼히 읽은 독자라면 세종과 세조가 두 책을 짓기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불교학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읽기를 거듭할수록 이것은 한 천재의 단독 작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또한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없던 문자의 창조와 새 문자로 불교경전의 엑기스만을 모아 완성도 높게 편찬하는 작업은 집단지성의 힘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샘이 깊은 물은 내를 이루어 바다로 모인다.

신미대사와 김수온의 존재

현재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이는 신미 대사이고, 석보상절의 저본으로 추정되는 '중수석가보'를 편찬한 김수온은 그의 아우이다. 지금도 충북 영동 김씨 족보와 가문에는 그들이 훈민정음 창제와 그 문자를 활용한 〈석보상절〉, 〈월인석보〉 편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뿐이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하고 수정 · 보완해 환골탈태시킨 〈월인석보〉에는 총 11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혜각존자 신미(信眉)와 판선종사 수미(守眉), 판교종사 설준(雪埈), 연경사 주지 홍준(弘濬), 前 회암사 주지 효운(曉雲), 前 대자사 주지 지해(智海), 前 소요사 주지 해초(海招), 대선사 사지(斯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가정대부동 지중추원사 김수온(金守溫)이 그들이다.

김수온빼고 모두 스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관여한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책에 자문단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을 모르는데 아무리 불교 관련 책이라 하더라도 훈민정음으로 쓴 책에 대하여 왕에게 왈가왈부 자문을 할 수 있을까. 어불성설이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보자. 세조는 월인석보 편찬한 2년 후 1461년에 간경도감을 설치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거의 모든 주요 경전을 훈민정음 불경으로 재탄생시킨다. 〈능엄경언해〉를 필두로 〈법화경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아미타경언해〉 〈원각경언해〉 등이 1462년부터 1467년 5년 사이에 훈민정음 불경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기에 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미는 〈목우자수심결〉 〈사법어〉 〈몽산화상법어〉를 아예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훈민정음'이란 문자의 우수성, 독창성, 과학성, 체계성, 합리성이란 단어에만 열광한 채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이 우수한지 과학적인지를 답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건가. 문자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말로 사용되고 문장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세상의 얼마나 많은 문자와 언어가 사어가 되고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가.

훈민정음은 600년 전 태어나 지금까지 싱싱한 활어처럼 세계를 좁다하고 헤엄치며 한류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것은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첫 번째 책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덕분이고 그것을 쓴 대표 저자들과 아직까지 우리가 눈감고 있는 집단지성들 덕분이다.

〈석보상절〉 서문 앞 〈훈민정음〉

사람들은 흔히 훈민정음을 얘기할 때 "나랏말씀이 중국과 달라…"로 시작되는 세종이 지은 〈훈민정음〉 책 서문을 읊조린다. 이 서문이 〈월인석보〉에도 등장한다. 〈월인석보〉의 차례는 '훈민정음' 으로 쓴 서문과 예의(例義)로 시작해 팔상도(八相圖), 〈석보상절〉 서문과 〈월인석보〉 서문, 〈월인석보〉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월인석보〉가 불교 책인데 훈민정음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 책의 목표는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첫 번째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새로 만든 글자 훈민정음을 익히고 그 다음에 새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 석보상절을 차근차근 익히게 하려는 배려였던 것이다.

독자가 세종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필자가 고등학교에 다닐 즈음에도 여자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나와 같은 또래의 그들은 이제 50대가 되어 대학에 가고 70대에 한글학교를 다니며 글자로 열린 새 세상에 태어나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

21세기가 이러할진대 하물며 600년 전 양반 중심, 남존여비의 계급사회였던 조선에서 중국의 한자로만 이루어진 문자 철옹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문자는 그 시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 힘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문자 세계를 열어준 사람이 바로 세종이다. 조선의 백성들 모두에게 특권을 준 것이다. 마치 신라의 원효가 왕족과 귀족만 읊조리던 '부처'와 '나무아미타불'을 대중에게 알려 준 것처럼.

이제 그의 마음자리에 서서 아들 수양대군의 입을 통해 지은 〈석보상절〉 서문을 읽어보자. 서문의 형식은 본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본문을 해설하는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주석을 일일이 풀이하다 보면 본문의 맥이 끊겨 유려한 수양대군의 육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하여 주석의 내용은 현대어 번역과 풀이에서 충분히 살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문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한다.

〈석보상절〉 서

서문의 형식을 보면 먼저 한문에 토를 달아 굵고 큰 글씨로 원문을 쓴다. 그리고 거기서 설명이나 풀이가 필요한 사전적 정의를 한 줄에 두 칸으로 나누어 주석을 단다. 우리는 이것을 세주(細註) 또는 협주(夾註)라고 부른다. 그리고 줄을 바꾸고 한 칸 내려써서 훈민정음으로 지은 우리말 〈석보상절〉 서문이 펼쳐진다.

〈석보상절 서〉
釋譜詳節序
佛이 爲三界之尊ᄒᆞ샤
( )부톄 三界옛 尊이 ᄃᆞ외야겨샤
弘渡群生ᄒᆞ시ᄂᆞ니
( )衆生ᄋᆞᆯ 너비 濟渡ᄒᆞ시ᄂᆞ니 無量功德이 그지업서
몯내 혜ᅀᆞᄫᆞᆯ 功과 德괘 人天所不能盡讚이시니라
( )사ᄅᆞᆷ ᄃᆞᆯ콰 하ᄂᆞᆯ ᄃᆞᆯ히 내내 기리ᅀᆞᆸ디 몯ᄒᆞᅀᆞᆸ논 배시니라

〈석보상절 서〉
부처께서 삼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석보상절〉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부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세존(世尊)'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제도하셨다. 그러한 부처의 공덕이 그지없어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루 다 말로 찬탄하지 못하도록 크디 크다는 것이다.

〈석보상절〉은 이렇게 부처의 공덕을 기리며 우리를 제도하러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에 '조선국어 대사전'이라고 할 협주의 순 우리말 풀이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자.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